

원자재값 폭등...신음하는 中企

폴리에틸렌값 22% 올라 출혈납품 일수 납품단가에 반영 못하면 공장문 닫을 판 지역 중소 제조업체 80% '경영난' 호소

종량제 봉투와 PE파이프를 제조해 관공서에 납품하고 있는 광주 A사 대표는 "20년 동안 기업하면서 요즘처럼 힘든 적이 없다"고 말한다. A사가 사용하는 주 원자재인 폴리에틸렌값은 지난해 초 1당 22.5%까지 올랐으나, 종량제 봉투의 납품단가는 되레 5% 깎였을뿐이기 때문이다. 이 회사 대표는 "고정비용 때문에 공장가동을 중단할 수 없어 출혈납품을 감수하고 있지만, 올해에도 납품

단가에 원가인상분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공장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고 걱정했다. 고유가와 원자재가 상승으로 인해 채산성 악화를 고민하는 광주·전남 지역 중소제조업체들이 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지난해부터 뛰기 시작한 원자재 값은 해를 넘기고도 진정될 기미가 없어 적자납품을 하는 업체들이 급증하는 추세다. 레미콘 제조업체인 영광군 B사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수년간 건

설경기가 침체돼온데다 최근 시멘트·모래 등 원자재 값은 20%나 올라 딜레마에 빠져 있다. 광업단가는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어 적자폭이 점차 커지는 상황이다. 더욱이 오는 3월부터 시멘트 가격이 현재보다 10%가량 추가 인상될 움직임을 보여 B사는 서비스업으로 업종 전환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 고흥에서 아스콘을 제조하고 있는 C사 대표는 "지난해 1년 동안 아스팔트·골재 등의 가격이 28%나 올랐으니 납품단가는 요지부동"이라며 "원가인상분을 납품계약 단계에 반영해줘야 사업을 유지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강영태)가 지역내 공공기관에 납품실적이 있는 179개 중소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원자재가 상승과 중소기업 채산성 실태'를 조사

한 결과 143개 업체(80%)가 고유가와 원자재가 상승으로 인해 '현재 경영상태가 어렵다'고 응답했다. '부도 위기에 직면해있다'는 업체도 7개(3.9%)에 달했다. 경영상태가 어렵다고 응답한 업체들은 ▲원자재가 인상분의 납품단가 미반영(44.2%) ▲동종업종간 과당 출혈경쟁으로 제품가격 하락(31.0%) ▲지역경기 침체에 따른 납품물량 감소(21.5%)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응답업체의 131개 업체(73.5%)가 외상으로 구입한 물품대금의 결제를 지연하고 있으며, 52개(29.0%)가 대출금 상환을 연체하거나 연체한 적이 있고 밝혔다. 또 128개(71.6%) 업체가 전년보다 매출액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중일원수를 줄였다고 응답한 업체도 48개(25.2%)에 달했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광주일보-여경협 공동 '여성경제인 포럼'...박춘근 광주·전남중기청장 특강



지난 15일 광주 신양파크호텔에서 열린 광주·전남여성 경제인 포럼 참석자들이 강연을 경청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고객 욕구 살리면 블루오션은 많다"

박춘근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장은 "눈에 보이는 고객만을 파서는 '블루오션'을 찾을 수 없다"면서 "창의성과 발상의 전환, 끊임없는 기술혁신으로 무장해야 고객창출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광주일보사와 한국어성경제인협회 광주·전남지회가 지난 15일 광주신양파크호텔에서 공동주최한 '제 29회 광주·전남 여성경제인 포럼'에 감사로 참여한 박 청장은 '블루오션 창출과 중소기업의 글로벌 전략'이라는 주제강연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박 청장은 강조하는 블루오션 창출전략의 핵심은 끊임없는 기술과 조직혁신이다. 새로운 시장

을 찾아내는 기업의 통찰력과 마케팅 능력,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리드하는 제품혁신, 글로벌 특허전략 등을 갖춰야 타기업에 비해 경쟁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논리다. 박 청장은 "그러나 반드시 새로운 기술만이 블루오션을 창출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기존의 기술을 최대한 활용해 고객의 다양한 욕구와 기호맞춤형 서비스를 기존의 기술을 활용하는 것도 블루오션 전략의 하나"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중소기업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트렌드의 변화, 시장의 변화를 면밀히 살핀 뒤 경쟁력 확보전략을 추구해야 한다고 박 청장은 강조

했다. 박 청장은 "특히 광주·전남지역 중소기업의 경우 시장상황, 보유 자원, 기술과 자금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각종 지원정책에 대한 활용방안을 수립한 뒤 원천기술을 확보하는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문화·레저·환경 등 타 지역에 비해 우위를 점하고 있는 지역 특유의 인프라를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여성경제인들과 광주·전남중기청 직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이날 포럼에서는 박 청장의 강연 외에 '2008년 중기청 지원사업' 등에 관한 설명회도 마련됐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오늘 창립 58주년 보해양조

전 임직원 영업 사원화 국내외 시장 확대 박차

주류산업의 외길을 걸어온 보해양조(대표이사 임건우·사진)가 18일로 창립 58주년을 맞는다. 보해양조는 지난 15일 목포 본사와 각 지점, 공장별로 창립기념식을 개최하고, 업무 유공사원과 무사고 운전사원 35명, 장기근속사원 19명 등 총 54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이와 함께 20, 30년 근속사원에게는 순금 10돈의 금메달을, 10년 근속사원에게는 순금 5돈의 금반지를 부상으로 전달했다. 임건우 대표는 창립기념사를 통해 "늘 좋은 제품 만들기에 고집하고 변화에 잘 적응할 수 있어 58년을 꿋꿋하게 영위할 수 있었다"며 "이제는 영업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 전 임직원의 영업사원화를 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광주·전남 소주시장 점유율 80%대를 유지하고 있는 보해양조는 단종나무 수확을 함유한 싱그러운 소주 '인쇄주'를 비롯해,



APEC 정상회의와 한·중 정상회담 공식 만찬주로서 선정된 '보해양조'는 5년 숙성 매실주 '매취순' 등을 개발해 국내외 시장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편, 보해양조는 창립주 고 임광희 회장이 지난 1950년 목포에서 창립, 소주와 매실주, 복분자주 부문에 있어 우리나라 주류산업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성장해 왔다. 지난 1981년 설립한 보해양전장학회(이사장 임건우)는 지난해까지 26년간 총 3천103명의 지역 학생들에게 27억9천400여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하는 등 지역 인재육성에 앞장서고 있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농협광주본부 전 직원 400여명 무등산 결의

농협광주지역본부(본부장 신성수)는 지난 16일 무등산 중머리재에서 관내 전 직원 400여명과 함께 '무등산 산상 사업추진 결의대회'를 가졌다. (사진) 이들은 2007년 고객관리부문 전국 최상위 지역본부 영예에 이어 올해에는 고객중심 팀제 개편과 CRM(고객관리시스템) 마케팅 강화로 '대한민국 No. 1. 유통·금융리더'

농협구현에 앞장서기로 다짐했다. 신성수 본부장은 "농업·농촌 지원역량 강화를 위해 손익목표를 기필코 달성하고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통해 종합업적 전국 1등을 지키자"며 "특히 농산물 유통 사업장을 확대해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하자"고 강조했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부정축산물 유통 업체 53곳 적발

위생 측면에서 문제가 있거나 정상적 도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축산물을 생산·유통한 업체들이 대거 적발됐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설날을 앞두고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5일까지 도축장·축산물가공업체·식육포장처리업체·축산물판매업소 279곳을 대상으로 축산물 특별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53곳에서 61건의 위반 사항을 확인, 관찰 관청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연합뉴스

정월 대보름 맞이 큰 장터 연다

농협전남본부 도내 60개 하나로마트

농협전남지역본부(본부장 이덕수)는 오는 21일 대보름을 맞아 18일부터 순천농협 파머스마켓과 동광양농협 하나로마트, 영광축협 하나로마트 등 전남도내 60개 농협 중대형 하나로마트에서 '정월 대보름 맞이 농축산물 및 제수용품 보탬대 큰장터 기획행사'를 실시한다. 이번 행사에는 부럼 모음전, 오곡밥재로 모음전, 입맛 살리는 나물 모음전, 불향기가 가득

상큼한 봄나물 모음전 등으로 나뉘어 국산 우수농축산물을 모아 판매한다. 또 과일과 채소, 나물 등 제수용품을 시장가격보다 10% 이상 저렴하게 판매하는 특별 할인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전남도내 각 회원농협별로 운영하는 315개 하나로마트의 국산 농축산물 판매액은 지난 1월말 기준 160억원으로, 전년동기 125억원에 비해 35억원(28%) 증가했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허위청구 병의원 공개

복지부 개정 법률안 심의

앞으로 병의원과 약국 등 요양기관이 허위부담 청구를 하다가 적발될 경우 이름이 만천하에 공개돼 망신당할 수 있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최근 법안심사소위원회회를 열어 허위청구 요양기관의 명칭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심의, 통과시켰다. 이 개정 법률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와 본회의를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로부터 시행된다. /연합뉴스

난방기와 에어컨을 1대로...

난방비 1/3로 줄었다!

TEMPIA

연락처 252-2900 / 080-252-7117

서경빌딩임대

368-8889